

## 제목 : 2002년 적정 임금인상률 전망

◆ 본 자료는 2002년 국민경제생산성 적정임금 인상률과 실제 임금인상률을 전망하는 자료임

- 국민경제 생산성에 근거한 적정 임금인상률은 5.1%로 전망
- 임금상승률 자료를 분석한 실제 임금상승률은 6.6%로 전망됨
-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임
- 임금교섭시기 역시 실제 임금상승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
  - 임금교섭이 하반기에 집중될수록 성장의 몫을 요구하는 노조의 협상력이 설득력을 가지며 실제 임금상승률은 전망치보다 높을 개연성이 큼

## 2002년 적정 임금상승률 전망

### ◆ 노·사와 임금의 양면성

- 임금이란 노동자에게는 소득, 즉 생계비의 중요한 원천이지만 기업주에게는 직접적인 생산비용이라는 양면성을 가짐
  - － 따라서 임금인상의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간에는 이해가 상반되기 마련이며 갈등의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
- 그러나 현실적인 임금결정에 있어서는 생계비와 생산비라는 측면 이외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같은 기업 내외의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
  - － 따라서 다른 경제변수들에 비해 노사간 협상의 결과인 임금상승률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음
-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는 적정임금인상과 실제 임금인상률 전망치를 비교
  - － 국민경제생산성에 기반한 2002년 임금상승률(소위 적정임금인상)과 경제여건을 고려한 임금식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예측값(이하 실제 임금인상률)을 구하고자 함

### ◆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

- 국민경제생산성이란 국가 전체적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
  - － 이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인플레이 중립적이며,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노동자에게는 생산에 기여한 만큼을 보상
  - － 국민경제생산성도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에서 평균 임금인상 수준을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같게 한다는 이른바 생산성 임금제의 하나임<sup>1)</sup>

---

1)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의 자세한 논의는 본원의 「분기별 노동동향」 2001년 1/4분기(제14권 1호)를 참조

- 적정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은 균형식으로부터 유도됨

$$\frac{W}{p} \equiv w = q = \beta \frac{Y}{L}$$

- 여기서  $w$ =명목임금,  $p$ =소비자물가지수,  $w$ =실질임금,  $q$ =노동의 한계 생산성,  $Y$ =부가가치(실질GDP),  $L$ =근로자수,  $\beta$ =1차동차 생산함수 가정 하에서의 노동의 기여도(또는 노동소득분배율)
- 위의 식에 로그를 씌운 후 전미분하면(노동소득분배율은 일정하다고 가정) 다음과 같은 임금상승률 공식을 도출할 수 있음.

$$\hat{W} = \hat{Y} - \hat{L} + \hat{p} \quad 2)$$

명목임금상승률 = 경제성장률 - 고용증가율 + 물가상승률

◆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2002년 적정 임금상승률은 5.1%

- 위의 공식에 각 변수들의 상승률 전망치를 넣으면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을 구할 수 있음.
- 주요 연구기관의 2002년 노동시장 전망은 아래 <표 1>과 같음

<표 1> 각 기관별 노동시장 전망 (단위 : %)

	2001년 잠정치	2002년 전망치			
		KLI	한국은행	KDI	삼성경제 연구소
경제성장률	2.53	-	3.9	4.1	5.0
물가상승률	4.1	-	3.0	2.6	3.6
취업자 증가율	1.06	1.8	-	-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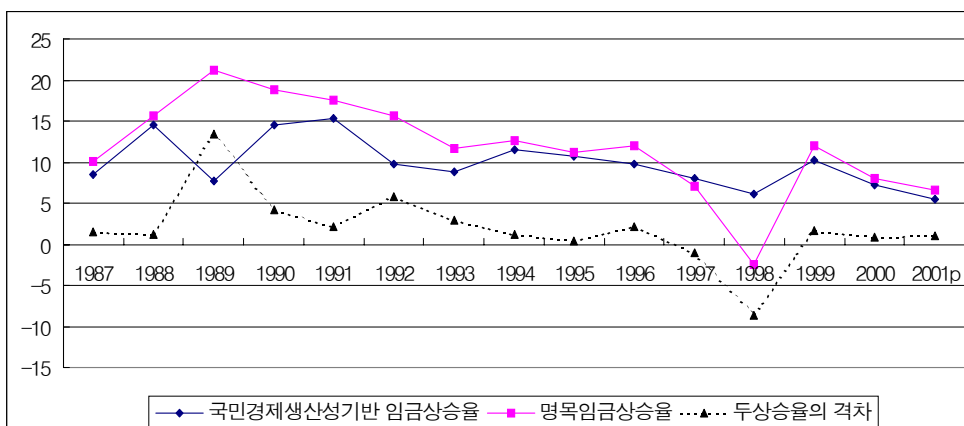
2)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 추정에 GDP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균형식의 논리상 실질임금의 계산에서는 디플레이터의 하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

-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 산출공식에 한국은행의 2002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, KLI의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대입하면 2002년 명목임금상승률은

$$\pi = 3.9 - 1.8 + 3.0 = 5.1 \%$$

-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과 실제 명목임금상승률의 연도별 추이 (그림 1)
  - 1989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 실제 명목임금 상승률은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보다 1~2%포인트 높게 나옴
  - 1989년의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GDP상승률이 높지 않아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보다 실제치가 상당히 높았으며, 98년의 경우 급상승한 물가상승 변동분을 임금조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실제치가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았음
  - 실제 명목임금상승률과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과의 차이는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이 10인 이상 상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나타나는 오차와 임금협상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정분으로 해석 가능

<그림 1>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과 실제임금상승률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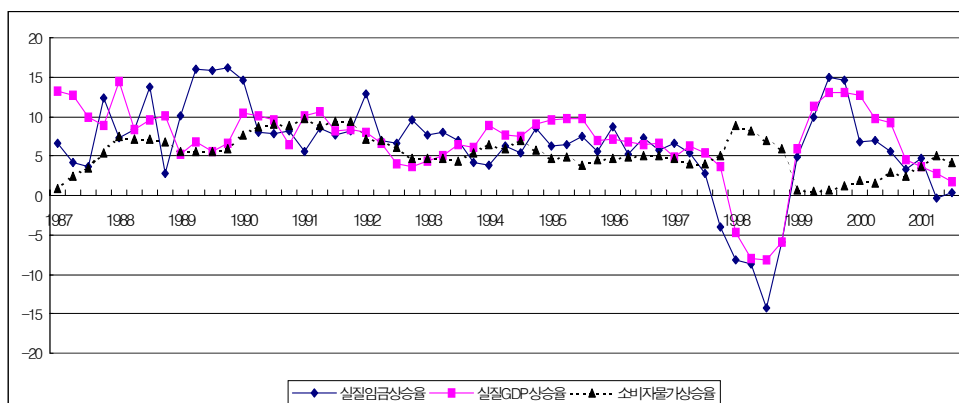
- 위의 논의는 실제명목임금상승률과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은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함

- 개별기업의 임금협상시 사용자 측은 기업의 지불능력, 노동자측은 생계비를 최우선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률, 물가상승률,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한 국민경제생산성 임금상승률에 근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◆ 실증적 임금상승률 전망은 6.6%

- 임금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과거의 임금수준과 GDP, 소비자물가 등의 관계를 통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2년 임금상승률을 예측할 수 있음
- 1987년 1/4분기부터 2001년 3/4분기까지의 실질임금상승률과 실질GDP 상승률,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연도별 추이를 그려보면 <그림 2>와 같음
  - 실질임금상승률은 실질GDP상승률과 유사한 추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더욱 유사함
  - 이를 보아 경제위기 이후 임금협상시 GDP수준이 그 이전 기간보다 임금결정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

<그림 2> 실질GDP 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추이



○ 1986년 1/4분기부터 2001년 3/4분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실질임금을 회귀분석한 결과

- 실질GDP수준을 설명변수로 하여 실질임금수준에 대해 OLS추정을 한 결과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설명력이 높은 모형으로 판단됨
- (실질임금) = 1502.8 + 0.136\*(실질GDP)

$$(4.3) \quad (34.0) \quad \bar{R}^2 = 0.949, DW = 1.96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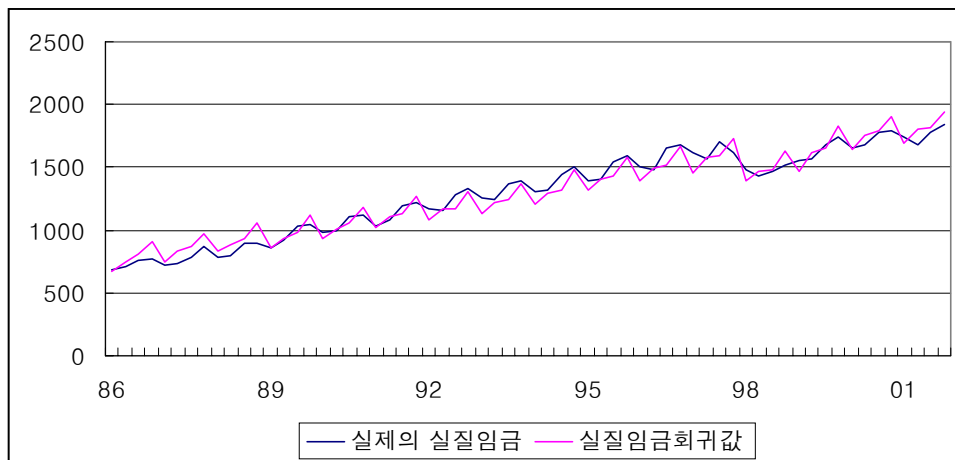
( )안은 t값

○ 회귀식으로부터 얻어진 각년도 실질임금 회귀값과 실제의 실질임금 추이를 동시에 나타내면 <그림 3>과 같음

- 두 값은 위 표 및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

<그림 3> 실제의 실질임금과 회귀값의 추이

(단위 : 천 원)



○ 회귀분석을 통한 2002년도 명목임금상승률은 6.6%

- 2002년 실질임금 전망치를 시뮬레이션하여 명목임금으로 환산한 결과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는 6.6%
- 이것은 위에서 계산한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 5.1보다 1.5%포인트 높은 수치
- 임금상승률이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상승률보다 1~2%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예년의 추세와 유사

○ 경제여건의 변화가능성

-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실제 임금상승률은 높아질 가능성도 큼
- 또한 임금교섭의 시기 역시 실제 임금상승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